

고창, 생물권 보전지역 학생교육사업 추진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된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이를 널리 알리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학생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지난달 지역 내 초·중·고를 대상으로 사업신청을 받아 총 14개(초등7, 중등1, 고등6) 학교가 신청해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운곡탐사르습지 등 5개 핵심지역(운곡탐사르습지, 고

인돌 세계문화유산, 동립저수지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선운산 도립공원, 고창갯벌 탐사르습지)과 생물권보전지역 중심으로 현장체험활동, 환경정화활동, 각종 공모전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학교 자체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고창의 미래를 이끌어 갈 학생들이 지역의 우수한 자연 생태환경과 문화 다양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생물

권보전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

또한 유네스코 학교가입 추진을 통해 국내·외 학생들이 교류함으로써 청소년 인성함양과 폭넓은 사고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학생교육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고창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고 우수한 자연생태환경 지역에서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며 우리 군을 제대로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고창=박용관 기자(sc0747@)

고창 농어촌공, 운영대의원 회의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지사장 황철구)는 6일 오전 지사 회의실에서 관내 운영대의원 12명과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제1차 지사 운영대의원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영농기를 앞두고 대농업인 서비스 자문을 위한 이날 회의는 금년도 지사 주요업무 현황 설명 및 대농업인 서비스 제고를 위한 토의 및 건의 등으로 진행됐다.

황철구 지사장은 2017년도 안정영농을 위해 농업용수 및 시설관리 뿐만 아니라 재난관리와 수질관리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하고 운영대의원들에게는 각종 농업기반시설물의 선량한 관리를 위한 계도와 농업인들의 영농편익을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부탁했다.

/고창=박용관 기자(sc0747@)

“생물권보전지역 고창 쉽게 이해해요”

고창군, 초·중·고 대상 현장체험활동·환경정화활동 등 추진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된 고창군이 이를 널리 알리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학생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된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이를 널리 알리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학생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지난달 지역 내 초·중·고를 대상으로 사업신청을 받아 총 14개(초등7, 중등1, 고등6) 학교가 신청해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운곡람사르습지 등 5개 핵심지역(운곡람사르습지, 고인돌 세계문화유산, 동림저수지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선운산 도립공원, 고창갯벌 람사르습지)과 생물권보전지역 중심으로 현장체험활동, 환경정화활동, 각종 공모전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학교 자체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고창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이 지역의 우수한 자연 생태환경과 문화 다양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

또한 유네스코 학교가입 추진을 통해 국내·외 학생들이 교류함으로써 청소년 인성함양과 폭넓은 사고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학생교육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고창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고

우수한 자연생태환경 지역에서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며 우리 군을 제대로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조종욱 기자



고창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초·중·고 대상 생태체험활동 추진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된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이를 널리 알리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학생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지역 내 초·중·고를 대상으로 사업신청을 받아 총 14개(초등7, 중등1, 고등6) 학교가 신청해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운곡삼사르습지 등 5개 핵심지역(운곡삼사르습지, 고인돌 세계문화유산, 동림저수지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선운산 도립공원, 고창갯벌 랍사르습지)과 생물권보전지역 중심으로 현장체험활동, 환경정화활동, 각종 공모전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학교 자체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고창의 미래를 이끌어

갈 학생들이 지역의 우수한 자연 생태환경과 문화 다양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

또한 유네스코 학교가입 추진을 통해 국내·외 학생들이 교류함으로써 청소년 인성함양과 폭넓은 사고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학생교육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고창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고 우수한 자연생태환경 지역에서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며 우리 군을 제대로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